

지역 소식 통

고창군,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 개최

고창군은 지난 3일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행사는 간부 공무원들의 주도 아래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의식을 고취하고 조직 전반에 걸쳐 관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슬로건에는 고창군이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현재 고창군은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와 민책보호관 제도를 운영중이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행사가 공직자 모두에게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법적 보호와 인센티브를 부여해 책임감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예술회관, 오페라 '사랑의 묘약' 18일 공연

부안군은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광주·김포오페라단 부안군 특별초청공연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공연한다고 밝혔다. 도나체티의 대표 희극이자 이탈리아 3대 오페라의 진수를 보여줄 이번 무대는 경쾌한 서사와 감미로운 선율이 어우러진 두 막의 로맨틱 코미디로 초보자부터 마니아까지 모두를 위한 공연으로 기획됐다. 약 70분간이 하이라이트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원작의 감성은 살리면서도 관객 이해를 돕는 친절한 해설이 더해진다. 한글 자막과 함께하는 이탈리아어 원어 공연으로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무대는 1880년대 이탈리아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지주의 딸 아다니를 짝사랑하는 순박한 청년 네모리노가 떠돌이 약장수 플라타에게 '사랑의 묘약'을 건네받으며 벌어지는 유쾌한 에피소드를 그린다. /부안=김석진 기자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최종 보고회

정읍시, 내장호 일원 총사업비 100억원 투입... 2026~2028년 3개년 사업 추진

정읍시가 내장호 일원을 '대한민국 치유관광의 성지'로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 3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브리핑룸에서 '정읍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2028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하는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유호연 부시장, 최준양 관광체육국장 등 시 관계자와 용역을 수행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영기 교수 등이 참석해 사업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사업은 '자연과 예술이 숨쉬는 대한민국 치유관광지의 성지' 조성을 목표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도비 50억원을 지원받아 총 1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2021년 내장호 상류 일부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치유관광 인프라 개발사업과 방문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진흥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는 이번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

업을 그동안 추진해왔던 내장호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핵심 허브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정읍 치유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학수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웰니스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내장호의 자연경관과 조각공원의 예술적 가치를 결합해 내장호를 치유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첫발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본격화

정읍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4일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시 관계자, 설계용역사, 감리업체,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립공사 착수회의를 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 점검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계 방향, 시공 일정, 안전관리 및 품질 확보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시는 이번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10일 착공에 들어가며, 2028년 11월 준공 후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거쳐 2027년 1월 공식 개소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단계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정기 공청회를 운영하고, 건립 공정·품질·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착수회의를 통해 설계·시공 전 과정에서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산모와 신생아가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거점시설을 구축해 정읍시가 출산 천하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출범

기업 간 상생협력 도모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3일 복합문화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주)알케이 송석기 전무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협의체는 기업 간 상생협력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정읍시장, 박일 시의회 의장, 김영훈 전북사남상공회의소 사무처장, 김갑수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회장, 이종수 북면 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장을 비롯해 입주기업 대표와 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행정과 기업 간 소통뿐만 아니라 기업 상호 간 정보 공유와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5월 입주기업 대표들이 참여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정관 제정, 회원사 모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3일 복합문화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집 등 창립총회 준비를 진행해왔다. 이번 창립총회에는 회원사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정관 승인과 임원 선출 등 협의회 설립 안건을 처리하며 공식 출범을 확정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산업단지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입주기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며, 공동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기술협력 촉진 등을 통해 산업단지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미래 발전 위한 국가예산 확보 '구슬땀'

이학수 정읍시장이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 등 주요 국회의원들을 만나, 팻푸드 플랫폼 구축 등 6개 중점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사업은 총사업비 728억원 규모이며 2026년 국비 요구액은 98억 5000만원이다. 여기에는 '팻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총 80억), '국가바이오자원 산업화 허브 구축사



업' (총 380억), '국가 RI-ADME 구축·활용 지원사업' (총 100억) 등 6개 중점 사업이 포함됐다. 이 사업들은 앞서 지난 5월 중앙부처와 7월 기재부

를 직접 방문해 건의했던 핵심 사업이다. 특히 '팻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과 '국가 RI-ADME 구축·활용 지원사업'은 지난 2년간 정읍시가 미래성장동력으로 공들여온 사업이다. 정읍이 가진 전복연구개발특구 내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연계해 반려동물 산업과 첨단 바이오 신약 평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제7회 효동 전통혼례 문화축제 성료

부안군은 지난달 31일 부안읍 물의거리 야외무대에서 제7회 효동 전통혼례 문화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부안군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돼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농촌 지역 간 교류, 주민 성과 공유의 장으로 진행됐다.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신랑·신부가 참여한 전통혼례이다. 전안례, 교배례, 서천지례, 서배우례, 근잔례 등 혼례 절차가 전통 방식으로 진행되며 방문객들에게 전통 혼례문화의 의미와 품격을 생생히 전달했다. 또 축제장에서는 풍물놀이, 떡메치기 체험 등 다양한 전통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완주군 두억마을 주민들이 참여해 전통 리듬과 장단을 살린 지깃 가락 공연을 선보이며 농촌마을 간 문화 교류를 이뤘다. 한편 축제와 연계된 부안읍 농촌증



심지활성화사업 성과공유회에서는 사업 추진 성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태평소와 장구 공연이 펼쳐져 지역 공동체의 흥과 전통의 맛을 더했다. 김용화 효동마을재전위원장은 "사라져가는 전통을 잇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으며 세대가 함께 전통의 가치를 느끼고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소방서, 소방경 승진자 임명장 수여

고창소방서는 4일 2025년 하반기 소방경 급속승진 심사 대상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주대길 소방경과 김영덕 소방경은 앞으로 핵심 지휘관으로서 재난 대응과 예방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변화하는 재난 환경 속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공공 안전 강화에 힘을 여정한다. 또한 동료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대응력과 조직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임정욱 고창소방서장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든든한 중간관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소방서는 지속적인 인사와 운영과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대응력과 조직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